

조선·류큐(琉球)사행, 네덜란드인의 에도방문과 막부의 법령·先例

— 『享保撰要類集』의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를 중심으로 —

허지은 _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목 차

- I. 머리말
- II. 조선·류큐사행, 네덜란드인의 에도방문
- III. 『享保撰要類集』의 편찬과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 IV. 조선·류큐사행, 네덜란드인에 대한 막부의 법령·先例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그동안 通信使 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에도막부의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 때 편찬된 조선·류큐사행과 네덜란드인의 에도방문과 관련된 법령·先例集인 『享保撰要類集』을 소개하고, 내용 분석을 통해 에도지역에서 조선·류큐사행과 네덜란드인을 각각 어떻게 대우하고 접대했는지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1719년 조선사행과 1718년 류큐 사행에 대한 에도에서의 접대는 교호개혁 등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시행했던 정책들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 접대 및 의례 내용이 그 이전 사행에 비해 간소화되었다.

둘째, 1718년 류큐사행 때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류큐를 ‘異國’이 아닌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는 ‘附庸國’으로 취급하여 사쓰마번주가 류큐사행을 에도까지 데려왔는데도 산킨코타이 행렬에 합류시켜 데려온 정도로 간주하여 官位를 올려주

지 않았다.

셋째, 1711년 사행 때는 로주와 와카토시요리 저택을 방문하지 않았고, 1748년 사행 때는 당상역관이 로주와 와카토시요리 및 고산케의 저택을 방문했던 것과 달리 1719년 사행 때는 모두 8명의 로주와 와카토시요리의 저택과 고산케의 저택을 방문했다.

넷째, 도쿠가와 요시무네에게 말을 헌상하고, 에도막부의 마부에게 말 사육법과 치료법 등을 전수한 케이즈루는 서양의 학술지식의 도입을 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정책과 서양의 승마술을 직접 배우기도 했던 도쿠가와와 요시노부의 승마술에 대한 관심 때문에 에도 근교까지 원행을 가는 등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주제어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조선 사행(朝鮮使行), 류큐사행(琉球使行), 케이즈루(Keijser), 산킨코타이(參勤交代)

I .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그동안 통신사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에도막부의 8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 때 편찬된 조선·류큐사행과 네덜란드인의 에도방문과 관련된 법령·先例集을 소개하는 데 있다. 아울러 그 내용 분석을 통해 에도지역에서 조선·류큐사행과 네덜란드인을 각각 어떻게 대우하고 접대했는지를 비교하는 것 또한 이 글의 목적이다.

에도막부는 대내적으로 조선과 류큐를 일본에 ‘입공’하는 위치에 네덜란드는 통상하는 위치에 놓고, 조선의 통신사, 류큐의 慶賀使·恩謝使,

네덜란드인의 에도방문을 이용하여 쇼군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같은 ‘입공’의 위치에 놓았더라도 일본의 조선의 통신사와 류큐의 경하사·은사사에 대한 접대에는 차이가 있었고, 통상관계에 있었던 네덜란드인에 대한 접대 역시 달랐다.

지금까지 조선의 통신사, 류큐의 慶賀使·恩謝使, 네덜란드인의 에도방문에 대해 외교사, 정치사, 제도사, 문화사적인 시각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의 에도방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거나 관련 사료를 소개한 것이 많다.¹⁾ 조선·류큐사행에 관해서는 ‘通信國論’에 의거하여 류큐와 조선을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선·류큐사행을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고찰한 연구가 있다.²⁾ 한편, 조선·류큐사행이 에도까지 오는 동안 들렀던 지역에서의 접대양상을 비교하여 다른 연구는 있지만³⁾ 에도에서의 예우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⁴⁾ 더구나 조선·류큐사행과 아울러 네덜란드인에 대한 에도막부의 대우 및 접대를 비교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 1) 박화진, 「朝鮮通信使의 에도(江戶) 入城 過程-제9차 통신사행(1719년)을 중심으로-」, 『조선통신사연구』 4, 2007, 마츠바라 타카토시, 「근세 동아시아와 조선 통신사 「에도에 조선 통신사 퍼레이드가 왔다」, 『지역사회』 71, 2014, 紙屋 敦之, 「寛政八年琉球使節の江戸上りについて(特集 近世日本・琉球・中国の芸能交流)」, 『芸能史研究』 202, 2013, 久貝典子, 『琉球人来朝記』をよむ-儀式の場での衣装という視点から-, 『阪券・寶玲文庫の世界(ハワイ大學所藏阪券・寶玲文庫デジタル化プロジェクト事業報告・研究報告會 發表文』, 2015. 山本有美, 「安政五年阿蘭陀領事官江戸参府の歴史的位位置について」, 『昭和女子大學文化史研究』 7, 2003, 片桐一男, 「史料『参府之阿蘭陀人逗留中出役致候節書留』について」, 『日蘭学会會誌』 25, 2000.
- 2) 민덕기, 「에도시대 琉球使節과 朝鮮使節」, 『朝鮮과 琉球』, 아르케, 1999.
- 3) 玉井建也 「朝鮮通信使・琉球使節通航と情報・接待・応対-伊予国津和地島を事例として-」, 『早稲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 第4分冊, 日本史東洋史西洋史考古学』 51, 2006, 飯沼 雅行, 「朝鮮通信使・琉球使節通航時の綱引助郷-摂河两国を中心に-」, 『歴代宝案研究』 9, 1998.
- 4) 구지현, 「通信使와의 비교를 통해 본 琉球使節: 荻生徂徠의 〈琉球聘使記〉를 자료로 하여」, 『열상고전연구』 41, 2014, 조영심, 「1710년대 조선통신사와 류큐사절단의 국서 사건」, 『조선통신사연구』 24, 201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에도막부의 법령·先例集인 『교호센요루이슈(享保撰要類集)』의 「조센류큐아란타노부(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를 기본 자료로 하여 에도지역에서 조선·류큐사행과 네덜란드인을 각각 어떻게 대우하고 접대했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의 통신사와 류큐 사행에 대한 에도에서의 대우가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었는지, 외교 없이 통상의 대상이었던 네덜란드인의 경우는 어떻게 달랐는지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접대를 지시했던 에도막부의 의중과 당시 에도의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I . 조선·류큐사행, 네덜란드인의 에도방문

근세 일본의 에도막부는 기독교 금제를 축으로 무역의 통제관리, 일본인의 해외 왕래 금지를 위해 실시한 대외통교정책인 ‘쇄국⁵⁾’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네덜란드인을 나가사키의 데지마로 강제이주 시킨 1641년에 확립되었으며, 1854년 미국 페리 함대의 내항으로 미·일화친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약 200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쇄국’이라는 표현처럼 나라의 문을 닫았던 적은 없다. 주지하다시피 에도막부는 쓰시마(對馬)·사쓰마(薩摩)·나가사키(長崎)·마쓰마에(松前)라는 4개의 대외창구를 설정하고 이 창구들을 통해 조선·중국·류큐·네덜란드·아이누와의

5) 쇄국이라는 용어는 1801년 나가사키의 오란다어通詞였던 시즈키 타다오(志筑忠雄)가 독일인 의사 앵겔베르트 켐퍼(Engelbert Kaempfer: 1651~1716)가 저술한 『日本誌(Histori of Japan)』라는 책 부록의 표제를 「鎖國論」이라고 번역, 제목을 붙이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쇄국론」은 조금씩 유포되어 읽히다가 1850년 대에 가서 정식으로 출판되었다. 아사오 나오히로(朝尾直弘)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를 닫는다’라는 의미의 쇄국이라는 용어는 幕末 일본의 개국이 문제 시되면서 이와 대비되는 에도시대의 체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이다.(朝尾直弘, 『日本の歴史17-鎖國』, 小學館, 1975, 16~17쪽.)

관계를 유지했다.

이 가운데 조선은 일본의 유일한 외교국이었다. 1600년 세키가하라(關が原)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일본 내 패권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정권의 안정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과의 전후 처리를 완결 짓고 조선으로부터 일본을 대표하는 정권으로 인정받으려 했다.⁶⁾ 이에 쓰시마를 매개로 조선에 화친의사를 전했고, 1607년 조선에서 일본에 회답겸쇄환사를 파견함으로써 양국 간의 국교는 회복되었다. 조선후기 3차례의 회답겸쇄환사와 9차례의 통신사가 에도막부에 파견되었다.

조선의 통신사 파견 목적은 새로 취임한 쇼군에 대한 습직축하로 되어 있지만 주지하다시피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제로는 각 사행마다 조·일 간의 현안문제 해결과 정세파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에도막부의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쇼군취임 축하를 위해 조선에서 1719년에 파견했던 己亥使行을 예로 보면 표류민 송환, 공작미에 관한 문제해결이라는 임무가 부과되었다.⁷⁾ 당시 사행의 구성원은 正使, 副使, 從事官 각 1명, 上判事 3명, 次上通事 2명, 押物官 4명, 製述官 1명, 寫字官 2명, 良醫 1명, 의원 2명, 書員 1명, 風樂手(音樂士), 軍官 17명, 書記 3명, 別破陣 2명, 馬上才 2명, 理馬 1명, 그 외에 格軍(水夫), 旗手·鼓手, 盤纏直 등을 포함하여 총 475명이었다.⁸⁾

이들은 4월 11일 한성을 출발하여 27일 쓰시마의 후츄(府中)에 입항하였고, 후쿠오카(福岡), 오카야마(岡山) 등을 거쳐 9월 27일 에도에서의 숙소인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에 도착했다. 10월 1일 에도성에서 빙례의식을 행하고 10월 5일에는 쇼군 앞에서 馬術 시범을 보였다. 에도에 체재하는 동안 많은 일본의 儒子·文人과 교류하고 10월 15일 에도를 떠나 귀

6)ロナルドトビ, 速水·永積·川勝 譯, 『近世日本の國家形成と外交』, 創文社, 1990, 53-54쪽.

7) 『속중실록』 1719년(숙종 45)년 4월 11일 계축.

8) 三宅英利, 손승철 譯, 『近世日本の國家形成と外交』, 이론편찬, 1991, 330쪽.

로에 올랐다.⁹⁾ 기해사행의 에도체류 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19일간이었다.

한편, 근세시기 일본과 류큐와의 관계는 1609년 사쓰마의 시마즈씨의 류큐정복 후, 에도막부는 시마즈씨의 琉球領有는 인정하면서 日明 강화교섭을 위해 ‘王國’의 형태는 남겼다. 근세 류큐의 막번제 국가 내의 「異國」이라고 하는 특이한 존재형태는 이후 日明 강화교섭의 실패와 明 황제에 의한 류큐왕 소호(尙豊)의 책봉(1633), 시마즈씨의 領知判物에 류큐의 고쿠타카(石高)가 명기되어 류큐가 막번제의 군역·知行체계로 편입(1634)되면서 정착했다.¹⁰⁾

류큐사행은 사쓰마 시마즈씨의 에도 산킨(參勤) 행렬에 동반되는 형태로 도쿠가와 쇼군이 교체되었을 때는 慶賀使, 류큐 尙王의 교체 때는 謝恩使라는 명칭으로 에도를 방문했다. 류큐사행의 성립시기에 관해 『通航一覽』에서는 1634년에 파견된 사행을 경하사의 효시, 1644년에 파견된 사행을 사은사의 효시로 보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1634년 소호의 류큐 국왕 취임을 계기로 교토 니쥬(二條)城에 파견되었던 사행을 謝恩使의 효시로 보는 견해와¹¹⁾ 이것을 재검토하여 1634년 사행이 사은사가 아니며, 류큐가 시마즈씨에게 속한다고 하는 ‘附用’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1644년에 류큐국왕이 도쿠가와 이에쓰나의 탄생축하를 목적으로 사행을 정식으로 에도에 파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류큐사행의 성립으로 본 견해가 있다.¹²⁾

류큐에서 에도막부에 파견했던 사행의 파견연도를 비롯하여 명칭과 목적, 인원 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9) 三宅英利, 손승철 譯, 앞의 책(1991), 335~347쪽. 한성을 출발하여 에도를 떠날 때까지의 기해사행의 일정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10) 荒野泰典, 『近世日本と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1998, 10쪽.

11) 紙屋敦之, 『幕藩制國家の琉球支配』, 校倉書房, 1990.

12) 木土博成, 「琉球使節の成立」, 『史林』 99권 4호, 2016.

〈표 1〉 류큐사절 일람표

	연 도	명 칭	목 적	인원	비 고
1	1634(寬永11)년	謝恩使	尙豊就封御禮		京都二條城
2	1644(寬永21)년	慶賀使	徳川家綱誕生祝賀	70명	江戸 上京 시작
		謝恩使	尙賢就封御禮		日光東照宮參詣
3	1649(慶安2)년	謝恩使	尙質就封御禮	63명	日光東照宮參詣
4	1653(承応2)년	慶賀使	徳川家綱襲職祝賀	71명	日光東照宮參詣
5	1671(寬文11)년	謝恩使	尙貞就封御禮	74명	이후 上野東照宮參詣
6	1682(天和2)년	慶賀使	徳川綱吉襲職祝賀	94명	
7	1710(宝永7)년	慶賀使	徳川家宣襲職祝賀	168명	이후 清國風 行裝
		謝恩使	尙益就封御禮		
8	1714(正徳4)년	慶賀使	徳川家繼襲職祝賀	170명	국왕의 서간 문제
		謝恩使	尙敬就封御禮		大君 호칭 사용 중지
9	1718(享保3)년	慶賀使	徳川吉宗襲職祝賀	94명	
10	1748(寬延元)년	慶賀使	徳川家重襲職祝賀	98명	
11	1752(宝曆2)년	謝恩使	尙穆就封御禮	94명	
12	1764(明和元)년	慶賀使	徳川家治襲職祝賀	96명	
13	1790(寬政2)년	慶賀使	徳川家齊襲職祝賀	96명	
14	1796(寬政8)년	謝恩使	尙溫就封御禮	97명	
15	1806(文化3)년	謝恩使	尙灝就封御禮	97명	
16	1832(天保3)년	謝恩使	尙育就封御禮	78명	正使 豊見城王子가 가고시마(鹿兒島)에서 사망
17	1842(天保13)년	慶賀使	徳川家慶襲職祝賀	99명	
18	1850(嘉永3)년	謝恩使	就封御禮	99명	

* 柏山泰訓, 「무로쓰(室津)에 온 조선통신사와 류큐 사절」, 『조선통신사연구』 21, 2016. 木土博成, 「訳官使・通信使とその周辺」 심포지움(나고야대) 토론문 참조.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享保撰要類集』의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에 언급된 1718년 류큐사행은 94명이 파견되었는데, 그 구성원을 『通航一覽』을 근거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사 1명, 부사 1명, 贊議官 1명, 樂正 1명, 儀衛正 1명, 掌翰史 1명,
圍師 1명, 使贊 6명, 樂師 5명, 樂童子 8명 以下 68명. 총 94명.¹³⁾

13) 『通航一覽』 卷之十三 「琉球國部」 十三

류큐사행의 정사는 30세 전후의 국왕의 숙부, 자녀, 손자 가운데 선발되었는데, 1718년 사행 때는 越來왕자가 파견되었다. 부사는 정사의 보좌이자 사절단의 책임자로 왕가의 일족이 파견되었다. 찬의관은 부사의 상담역을 담당하였고, 악정은 屋内 의식에 사용하는 음악을 지도했다. 악동자는 연주·노래·무용을 담당했던 12~3세의 미소년들이다.¹⁴⁾

보통 류큐사행은 6월경에 계절풍을 이용하여 류큐를 출발하여 사쓰마(薩摩)의 야마가와(山川)항구에 도착했다. 사행일행은 가고시마쵸카(鹿兒島城下)의 류큐관에서 준비를 마친 후 9월경에 300여 명의 사쓰마번의 役人들과 함께 사쓰마에서 출발하여 나가사키를 거쳐 시모노세키(下關)에 들렀다가 세토나िका이(瀬戸内海) 항로를 이용하여 오사카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요도가와를 거슬러 올라가 교토의 후시미(伏見)에 상륙한 후 도카이도(東海道)를 경유하여 11월경에 에도에 도착하여 1~2개월 정도 체류한 후 해가 바뀌면 에도에서 출발하여 사쓰마를 경유하여 류큐로 돌아왔다.¹⁵⁾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1718년 류큐사행의 일정을 『通航一覽』을 근거로 정리해 보면 류큐사행은 9월 10일 류큐를 출발하여 사쓰마로 갔고, 사쓰마번주 마쓰다이라(松平)를 따라 9월 13일 사쓰마를 출발했다. 윤 10월 15일 후시미(伏見)에 도착했고 18일에 에도로 출발했다. 11월 8일 에도에 도착, 13일에 에도성에 가서 쇼군을 알현하고 14일과 15일에는 음악 공연을 했다. 21일에는 고산케(御三家)를 방문하고, 12월 2일 에도를 출발하여 21일 후시미에 도착, 23일 후시미를 출발하여 귀국했다.¹⁶⁾

14) 佐藤権司, 『朝鮮通信使・琉球使節の日光参り』, 随想舎, 2007, 142쪽.

15) 류큐사행은 17세기 전반부터는 막부가 쇼군의 위광을 과시하기 위해 닛코 참배를 요구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에도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닛코(日光)까지 가서 이에야스의 靈廟인 도쇼구(東照宮)에 참배했다. 1651년 에도에 있는 寛永寺에 도쇼구 社殿이 완성되자 이후 류큐사절은 닛코까지 가지 않았고 1671년 이후에는 에도의 우에노 도쇼구에서 참배를 했다.([http://www7b.biglobe.ne.jp/~whoyou/history01.html#9\(真榮平房昭,「琉球使節の江戸立」\(上\)\)](http://www7b.biglobe.ne.jp/~whoyou/history01.html#9(真榮平房昭,「琉球使節の江戸立」(上))))

한편, 나가사키는 에도막부의 직할지로서 代官과 奉行가 지배하였다. 1635년 에도막부는 그때까지 큐슈·西國 등에 내항하던 중국선을 나가사키로 내항하도록 했다. 또 1639년에는 크리스트교의 금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 포르투갈인을 나가사키에서 추방하고 1641년에는 히라도(平戸)에 있었던 네덜란드 상관을 없애고 나가사키의 데지마(出島)로 이전시켰다. 이로써 에도막부는 나가사키에서의 중국·네덜란드와의 무역과 해외정보를 관할할 수 있게 되었다.¹⁷⁾ 서양의 나라로 유일하게 일본과 통상관계를 유지하게 된 네덜란드에 대해 에도막부에서는 국제정세보고서인 『네덜란드풍설서』를 제출하고 네덜란드 상관장으로 하여금 에도로 가서 쇼군을 만나도록 하는 에도산푸(江湖參府)를 요구하였다.

네덜란드인은 1609년에 시작하여 1633년부터는 매년, 1750년부터는 5년에 한 번씩 1850년까지 167회(통상 예방 166회, 특파 1회)에 걸쳐 에도에 갔다.¹⁸⁾ 이들은 이때 쇼군에게 통상허가에 대한 답례와 진상품을 증정했다. 구성원은 데지마를 통괄하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일본주재 대표인 상관장(商館長)과 서기, 의사 세 사람과 이들의 종복, 막부의 하급관리인 도신(同心), 통역, 짐꾼, 가마꾼 등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데지마를 출발해서 시모노세키(下關)까지는 육로를 이용하였고, 그곳에서 사카이(堺)까지는 세토나йка이(瀬戸内海)의 해로를 이용했다. 그 후 오사카(大坂)에서 교토까지는 배로 요도가와(澁川)강을 이용하였고, 에도까지는 도카이도(東海道)를 걸어서 이동했다. 다시 데지마로 돌아올 때까지 약 3개월이 걸렸으며, 에도에서 머무르는 기간은 약 3주였다.¹⁹⁾

16) 『通航一覽』卷之十三 「琉球國部」十三

17) 高木昭作, 『近世日本の歴史』, 放送大學教育振興會, 2003, 94~95쪽.

18) 寺島実郎, 「本質を見抜く眼識で新たな時代を切拓く 脳力のレッスン(158)蘭学の発展とシーボルト事件の背景 : 17世紀オランダからの視界」, 『世界』 870, 岩波書店, 2015.

19) イモンスクリーチ, 村山和裕 訳, 『阿蘭陀が通る』, 東京大学出版会, 2011, 10쪽.

조선·류큐 사행과 네덜란드인의 에도방문을 에도막부에서는 조선 사행의 경우 ‘來聘’, ‘來朝’로 표현하고 있다. ‘내빙’의 사전적 의미는 ‘외국에서 사절이 예물·貢物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며, ‘내조’는 ‘외국·속국의 사자 등이 조정에 와서 예물을 헌상하는 것’,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해 오는 것’이다. 반면에 류큐사행의 에도방문은 ‘목적하는 지점에 가서 이르는 것’이라는 ‘到着’과 ‘다이묘(大名)가 에도에 산킨코타이(參勤交代)하러 가는 것’, 또는 ‘에도에 가는 것’이라는 ‘산뿌(參府)’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네덜란드인의 에도방문은 도착한다는 뜻의 ‘산차쿠(參着)’와 ‘산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²⁰⁾

에도막부에서 조선·류큐사행과 네덜란드인의 에도방문을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통신의 나라 조선과, 통상의 나라 네덜란드, 그리고 1609년 사쓰마번의 침공 이후 시마즈씨에게 속하게 된 류큐라고 하는 세 지역에 대한 막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류큐사자와 네덜란드인이 에도를 방문했을 때 그들에 대한 대우와 접대는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었을까.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 에도막부의 8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 재위:1715~1745년)의 명령에 의해 편찬된 에도막부의 法令·先例集인 『교호센요루이슈』의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교호센요루이슈』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의 내용분석에 앞서서 『교호센요루이슈』의 편찬배경과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의 내용구성 등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20) 日本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Ⅲ. 『享保撰要類集』의 편찬과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1716년 도쿠가와 고산케(御三家)의 제 2위의 家格을 가진 紀伊藩의 다 이묘였던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도쿠가와 宗家의 혈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에도막부의 8대 쇼군으로 취임했다.

당시 일본은 겐로쿠시대(1690~1709년) 이후의 경제적 침체, 전염병유행, 재해 등으로 인해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이와 더불어 막부의 재정도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요시무네는 이전 쇼군들과는 달리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대개혁을 단행했다. 이 개혁의 방향은 일본 전역과 모든 집단의 자주성을 규제하고 막부의 권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기능·공공기능을 확대하는 것이었다.²¹⁾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법전의 편찬을 통해 그때까지 경험·습관·개인적 재량에 의해 이루어졌던 私法을 정비했는데, 그 일환으로 당시 미나미마치부교(南町奉行)였던 오오카 다다스케(大岡忠相)에게 법령의 선례를 집대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오오카 다다스케는 하타모토(旗本)집안 출신으로 1700년 쇼군의 기마 친위대의 번사(番仕)를 시작으로 쇼군 교체시 각국의 순찰, 다이묘의 개역·轉封 때 성의 접수 및 인계를 감독하던 스카이반(使番), 하타모토나 고케닌(御家人)을 감찰하는 메쓰케(目付)를 거쳐 이세(伊勢) 지방의 야마다부교(山田奉行)가 되었다. 이 때 기슈(紀州)번과 이세지역의 경계를 둘러싼 분쟁에서 공정한 재판관을 하면서 당시 기슈번주(紀州藩主)였던 도쿠가와 요시무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 결과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8대 쇼군으로 취임한 후 오오카 다다스케를 에도의 미나미마치부교로 발탁하여 민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당시 에도마

21) 大石 學, 『江戸の外交戦略』, 角川學藝出版, 2009, 174~175쪽.

치부교는 60대에 취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오오카 다다스케는 41세에 발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인정받아 19년간이나 에도마치부교로 재직했다.²²⁾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오오카 다다스케에게 법령의 선례를 집대성하라는 명령한 것도 오오카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오오카 다다스케는 법령의 선례를 집대성하라는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명령에 따라 집무상의 편의를 위해 市政上 중요한 법령과 이후에 참고가 될 것들을 분류하고 편집하여 완성한 후 『撰要類集』라고 이름 붙였다. 1735년 오오카 다다스케가 지사부교가 된 후에도 마치부교쇼에서는 이 작업을 계속하여 1753년 3월까지의 법령을 추가하여 개정했다. 이것이 『교호센요루이슈』 32권 41책이다.²³⁾

『교호센요루이슈』에는 도쿠가와 막부의 포고·告示 등을 비롯하여 로주(老中)가 마치부교(町奉行)에게 은밀히 내린 지시나 마치부교의 의견을 묻고 의논한 내용, 에도막부의 최고 재판소인 評定所의 上座 혹은 마치부교의 稟議 등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어 법령의 조문을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제도에 관해 입안한 취지와 당시의 상황도 알 수 있다.²⁴⁾ 특히 『교호센요루이슈』의 31권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는 조선·류큐사행과 네덜란드인의 에도방문과 관련된 1682년부터 1752년까지의 법령과 선례를 모은 것이다.

한편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1742년에도 재판을 비롯한 사법·행정상

22) 国史大辞典編集委員会, 『国史大辞典』, 吉川弘文館, 1987.

23) 日本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享保撰要類集』 해제, 『日本大百科全書』, 小学館, 1984. 이 두 가지의 참고자료에서는 「撰要類集」에 1716년부터 1753년까지의 법령이 편집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31권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의 내용을 보면 1682년과 1711년에 일본에 파견되었던 조선사행에 관한 법령도 실려 있다. 『享保撰要類集』의 享保년간이 1716년부터 1753년까지 인데서 비롯된 오류로 생각된다.

24) 池辺義象 編, 『日本法制史書目解題』上, 大鑑閣, 1918, 232쪽.

의 評議를 담당했던 評定所에 명하여 1615년부터 1743년까지 129년 동안 발행되었던 각종 후레가키²⁵⁾를 모아 『오후레가키 슈세이(御觸書集成)』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1744년에 3,550통의 후레가키를 주제별로 분류·정리한 『御觸書寬保集成』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60년에는 1744~1760년분의 『御觸書寶曆集成』, 1789년에는 1761~1787년분의 『御觸書天明集成』, 1841년에는 1788~1837년분의 『御觸書天保集成』가 완성되었다. 『오후레가키 슈세이』에 실린 오후레가키의 내용은 막부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종교 각 분야에 관련된 사항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연중 행사, 검약(儉約), 범죄의 예방 및 적발 등에 관한 것이 많으며, 조선과 류큐에서 일본에 파견되었던 사행의 접대와 관련한 오후레가키도 朝鮮人來聘, 琉球人來聘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실려 있다. 『오후레가키 슈세이』에는 1655년, 1682년, 1711년, 1719년, 1748년, 1764년, 1811년에 파견되었던 통신사행과 관련된 오후레가키 총 134개가 실려 있다.²⁶⁾ 그리고 류큐 사행의 경우는 1671년부터 1832년까지 파견되었던 13회의 사행과 관련된 오후레가키 총 90개가 실려 있다.

그러나 『오후레가키 슈세이』의 내용은 법령의 조문만 정리되어 있고, 조선과 류큐사행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류큐사행과 네덜란드인이 에도를 방문했을 때 에도에서의 이들에 대한 대우와

25) 오후레가키는 쇼군의 직속 가신으로 정무를 총괄했던 로주(老中)가 와카토시요리(若年寄)와 합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하고, 와카토시요리에게 직속되어 공문서나 기록을 관리하고 로주의 자문을 받아서 선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했던 오쿠유히쓰구미가시라(奥右筆組頭)가 기안한 후 쇼군의 재가를 얻어 制定法이 된다. 그러면 와카토시요리에 직속되어 문서기록을 담당했던 오모테유히쓰(表右筆)는 가키쓰케(書付)라고 하는 사본을 필요한 부수만큼 작성하여 고위 관료들에게 배포하였다. 다이묘(大名)에게는 오메쓰케(大目付)가 전달하였고 그 외는 役職에 따라上司가 통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막부의 오후레가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막부직할령 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였다.(허지은, 「오후레가키(御觸書)를 통해 본 일본의 通信使 접대」, 『서강인문논총』 44, 2018, 9쪽)

26) 허지은, 위의 논문(2018), 10-11쪽.

접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에도막부의 포고·고시의 내용뿐만 아니라 포고와 고시가 이루어지는 배경과 과정까지 수록되어 있어서 제도에 관해 입안한 취지와 당시의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교호센요루이슈』가 보다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교호센요루이슈』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의 목차는 <표 2>와 같다.

<표 2> 『享保撰要類集』 三十一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目錄

순번	연도	제목
1	1711년	一 正徳元卯年朝鮮人來聘二付一件御書付町觸等之事
2	1682, 1711년	一 天和年中正徳年中朝鮮人來朝之節町奉行供廻り之儀二付伺言之事
3	1718년	一 享保三戌年琉球人到着二付一件御書付町觸等之事
4	1719년	一 享保四亥年朝鮮人來朝二付一件御書付町觸等之事
5	1721년	一 朝鮮人來朝二付道中人馬賃國役掛り二成候付御書付之事
6		一 阿蘭陀人御役屋敷江罷出候節之式并御下物之事
7	1735년	一 阿蘭陀ケイツル逗留中所々江罷出候節同心差出候事
8	1748년	一 延享五辰年朝鮮人來朝二付被仰渡御書付并伺書申渡等之事
9	1748년	一 寛永元辰年琉球人參府二付被仰渡御書付并伺書申渡等之事
10	1752년	一 寶曆二申年琉球人參府二付御書付伺書其外諸書付之事

『享保撰要類集』의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는 조선사행 관련 5건, 류큐사행 관련 3건, 네덜란드인 관련 2건으로 되어 있다. 에도를 방문한 조선사행과 관련된 1번과 2번은 1682년 壬戌使行(일본:天和信使)과 1711년 辛卯使行(일본:正徳信使) 때 발급되었던 문서와 마치부레(町觸)²⁷⁾를 정리

27) 마치부레는 에도시대에 막부와 각 다이묘가 영내의 초닌에게 공포한 법령이다. 에도에서는 마치부교가 관할하는 마을의 초닌들에게 전달했다. 엄밀하게는 마치부교가 발행한 것을 마치부레라고 하고 로주(老中)의 명령에 의한 것과 로주에게 문의한 후 발행한 것은 소부레(惣触)라고 해서 구별하였다. 후례의 전달은 마치부교쇼로 각 마을의 대표자(초의 나누시(名主)와 가치교지(月行事))를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에도에서는 18세기 경부터 중요한 후례 이외에는 마치토시요리아쿠쇼(町年寄役所)에서 통지하였다. 후례가 통지된 후 각 마을에서는 이것은 필사하여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파수막(番屋)에 붙이거나, 집 주인이 임차인에게 이야기해주거나, 각 마을의 대표자가 후례의 내용을 확인했다는 연판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日本大百科全書』)

한 것이다. 『享保撰要類集』의 목록 첫 번째에 있는 「被仰出御書付之部」를 비롯하여 각 주제에 수록되어 있는 법령·선례가 1717년분이 가장 빠른 시기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²⁸⁾ 1711년 신묘사행은 대등·간소를 바탕으로 하는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개정안으로 출발 전부터 조선에서 논쟁이 있었고, 출항 직전이 새로운 국서교환, 에도에서의 국서를 둘러싼 논쟁, 전례 없는 국서의 상호반환, 쓰시마에서의 국서의 최종 교환 등 매우 이례적인 통신사행이었다. 결국 1719년 기해사행 때 1682년 임술통신사행 때의 구례로 돌아가 양국의 의례를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에는 1682년과 1711년 조선사행 때 발급되었던 문서와 마치부레부터 정리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록 가운데 3번, 4번은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에도막부의 8대 쇼군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류큐와 조선에서 사행을 파견했을 때 이들의 에도 방문을 계기로 로주가 마치부교에게 내린 지시나 마치부교의 의견을 묻고 의논한 내용, 마치부교의 稟議 등의 문서와 마치부레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6번은 에도를 방문한 네덜란드인이 마치부교쇼를 방문했을 때, 7번은 케이즈루라는 특정 네덜란드인이 에도를 방문했을 때의 법령·선례를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3번, 4번, 6번, 7번에 있는 문서와 마치부레의 내용을 각각 비교한다면 에도에서의 조선과 류큐의 사행, 네덜란드인에 대한 접대 준비과정과 당시의 상황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8) <http://kyuubakuhu.web.fc2.com/> 『享保撰要類集』

Ⅳ. 조선·류큐사행, 네덜란드인에 대한 막부의 법령·先例

1) 1718년 류큐사행

1718년 류큐사행은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8대 쇼군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94명의 인원으로 에도를 방문했다. 앞서 살펴본 대로 1718년의 류큐사행은 9월 10일 류큐를 출발하여 사쓰마로 갔고, 사쓰마번주를 따라 9월 13일 사쓰마를 출발했다. 그 후 약 2개월 후인 11월 8일 에도에 도착, 13일에 에도성에 가서 쇼군을 알현하고 14일과 15일에는 음악공연을 했다. 21일에는 고산케를 방문했고, 12월 2일 에도를 출발하여 귀국길에 올랐다. 에도에서의 체류기간은 11월 8일부터 12월 2일까지 25일간이었다.

이 류큐사행의 에도방문과 관련하여 에도 미나미마치부교가 정리한 문서와 마치부레의 내용(〈표 2〉의 3번 享保三戌年琉球人到着二付一件御書付町觸等之事)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a) 오보에(覺)

일. 근일 류큐인이 이곳에 도착할 것이니 마을 전체에 무례함이 없도록 반드시 지시해야 할 것이다. 구경하는 자들은 처마 밖으로 나와 있어서는 안 된다. 류큐인이 지나갈 때 손가락질을 하거나 크게 웃어서는 안 됨.

일. 류큐인이 도착할 것이므로 지나갈 길의 마을들에서는 길을 만 들고, 파손된 곳에는 모래를 채워 넣어야 한다. 진흙 등으로는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웃 마을들과 상의하여 보기 좋게 빨리 만들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어져서는 안 된다. 류큐인이 도착하는 날에는 물을 뿌리고 물통을 각각의 집 앞에 나란히 놓고, 청소를 소홀히 하지 않고, 류큐인이 지나가기 전에 물을 뿌려놓을 것.

일. 류큐인이 지나갈 때 나누시(名主)는 지시를 해서 가치교지(月行事)가 바쁘게 뛰어 돌아다니거나 무례함이 없도록 지시해야 한다. 료키도(兩木戸 양대문) 옆 나누시는 그 곳에 서서 싸움이 없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류큐인이 에도성에 올라가는 날과 이어 이곳을 떠날 때에도 이상과 같이 해야 한다.

1718(享保 3)년 11월 7일

마치부레를 고시했다²⁹⁾

b) 고케(高家)들 중에 가리노마즈메(雁の間詰) 嫡子, 고소자반(御奏番)과 적자, 기쿠노마(菊之間) 엔루이즈메(縁類詰)와 적자, 후요노마(芙蓉之間) 역인, 그 외 평복(布衣) 이상의 역인은 내일 13일 류큐 中山王 사자들이 예를 올릴 것이므로 히타타레(直垂) 가리키누(狩衣) 큰 문양의 옷을 입고 4시에 등성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다. 관직이 없는 분들은 등성하지 않는다.

1718년 11월 12일

같은 날 오메쓰케들이 건네주었으므로 이것을 기록한다. 本紙에는 11월 12일로만 되어 있다.³⁰⁾

a)는 1718년 에도를 방문한 류큐사행과 관련하여 첫째, 류큐사행이 지나갈 때 구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사항이다. 둘째, 류큐사행이 지나가는 길의 관리와 준비에 관한 사항이다. 셋째는 류큐사행이 지나갈 때 행렬을 방해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누시에게 단속을 지시한 사항이다. 이 사항들은 11월 7일에 마치부레로 고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b)는 류큐사행이 에도성을 방문하는 날 고케를 비롯하여 등성해야 하는 자와 그들이 입어야 할 의복의 종류 및 등성 시간 등을 지정하여 지시한 내용이다. 고케는 이름 있는 가문의 末流로 에도막부에서 의식, 조정

29)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3, 11월 7일.

30)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3, 11월 12일.

관련 典例를 담당하는 업무를 대대로 세습했다.³¹⁾ 관직이 없는 자를 제외하고 격에 따라 참석자를 선별하여 류큐사행 관련 의식에 참석하게 한 것이다.

각주 11)에서 언급한 대로 에도막부가 발행한 오후레가키를 모은 『오후레가키 슈세이(御触書集成)』에는 류큐사행과 관련하여 총 90개의 오후레가키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 1718년에 파견되었던 사행 때의 것은 다섯 개이다. 이 가운데 두 개의 내용이 a), b)와 같다.³²⁾ 다른 세 개는 사행이 지나가는 도로, 하수, 다리, 문 등의 보수와³³⁾ 도로 청소,³⁴⁾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주의사항을 언급한 것이다.³⁵⁾ 이 세 개의 오후레가키의 내용은 『교호센요루이슈』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에도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령 선례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편, 1718년 류큐사행 이전과 이후에 파견되었던 1714년 사행과 1748년 사행 때 발행된 오후레가키는 각각 아홉 개와 열한 개로 1718년 사행 때 발행된 다섯 개에 비해 그 수가 많고³⁶⁾ 『通航一覽』 「琉球國部」의 내용도 역시 1714년과 1748년 사행에 비해 1718년 사행관련 내용은 적다. 이처럼 1718년 사행 때 접대와 관련된 지시사항이 줄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에도를 방문하는 류큐사행의 구성원, 제반의례 및 헌상의 내용 등은 제6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노부(德川家宣)의 6대 쇼군 취임에 대한 慶賀와 류큐국왕 尙益의 왕위계승에 대한 謝恩을 목적으로 파견된 1710년에 이르러 정비되었다. 이것은 류큐사행이 행하는 의례를 쇼군의 권위과시

31) 世界大百科事典

32) 『御触書寛保集成』 50 「琉球人來聘之部」, 3027·3029.

33) 『御触書寛保集成』 50 「琉球人來聘之部」, 3026.

34) 『御触書寛保集成』 50 「琉球人來聘之部」, 3030.

35) 『御触書寛保集成』 50 「琉球人來聘之部」, 3028.

36) 『御触書寛保集成』 50 「琉球人來聘之部」

에 적극 활용하고자 했던 당시 쇼군의 정치고문이었던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³⁷⁾ 그러나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에 의해 아라이 하쿠세키가 정계에서 축출되면서 1718년 사행 때의 모든 의례는 1710년 이전 사행 때와 같이 돌아가서³⁸⁾ 의례 내용이 간소화되었다. 이것은 당시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일본의 경제 재건을 목표로 검소와 검약을 중시하고 조세제도를 개정하는 등 막부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교호개혁을 시행하고 있었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1710년 이후 류큐사행을 에도에 데려온 공로로 사쓰마번주의 관위³⁹⁾를 승진시켜주는 관례가 성립되어 1714년 사행 때는 사쓰마번주가 從四位下 中將승진했는데, 1718년 사행 때는 승진하지 못했다가 1748년에 다시 從四位上으로 승진했다.⁴⁰⁾ 1718년 류큐사행을 에도까지 데려왔는데도 사쓰마번주가 승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류큐를 ‘異國’이 아닌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는 ‘附庸國’으로 취급하여 사쓰마번주가 산킨코타이 행렬에 합류시켜 데려온 정도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⁴¹⁾

2) 1719년 조선사행

1719년 조선사행은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8대 쇼군 취임을 축하하기

37) 아라이 하쿠세키는 류큐사행이 쇼군을 만나는 進見의례에 후다이(譜代) 다이묘 뿐만 아니라 도자마 다이묘(外様大名)까지 동원하여 쇼군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했다. 민덕기(1999), 103쪽.

38) 민덕기(1999), 99~104쪽.

39) 사쓰마번주의 관위는 대대로 從四位下 侍從이었다. 紙屋敦之, 『幕藩制國家の琉球支配』, 校倉書房, 1990, 252쪽.

40) 紙屋敦之, 『幕藩制國家の琉球支配』, 校倉書房, 1990, 252~253쪽.

41) 막부는 류큐사행이 부용국 사행이기 때문에 辭見의례에 쇼군이 참석하여 하직 인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민덕기(1999), 104쪽.

위해 479명의 인원으로 에도를 방문했다. 이 조선사행과 관련하여 에도 미나미마치부교가 정리한 문서와 마치부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사행과 관련하여 에도 미나미마치부교가 정리한 문서와 마치부레의 내용(〈표 2〉의 4번 享保四亥年朝鮮人來朝二付一件御書付町觸等之事)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3〉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享保四亥年朝鮮人來朝二付一件御書付町觸等之事

연번	월일	내용	비고
①	1719년 1월	1682년 임술통신사행이 에도에 내조했을 때 에도에 도착, 등성, 그밖에 왕래한 길과 마을의 규범, 당시 발행했던 마치부레 등을 조사해서 제출하고, 후에 등이 없는 경우는 그 당시의 방법을 써서 제출할 것	
②	1719년 6월 22일	에도에 들어올 때 이용하는 길, 에도성에 올라갈 때 이용하는 길, 로주(老中)와 와카토시요리(若年寄)에게 갈 때 이용하는 길, 쓰시마 도주의 저택(屋敷)에 갈 때 이용하는 길, 마상재(馬上才)가 공연할 때 이용하는 길	오메쓰케 요코다 비츄노카미(横田備中守)와 나카야마 기타마치부교 이즈모노카미(中山出雲守)에게 건넨 문서
③	1719년 5월 15일	조선사행 접대 담당 다이칸(代官)에게 접대, 선물을 일체 받지 말고, 이것을 실무담당 데다이(手代)에게도 반드시 지시해 두고 소홀히 하지 말 것	오메쓰케 요코다 비츄노카미와 나카야마 기타마치부교 이즈모노카미에게 건넨 문서
④	1719년 5월 16일	야마시로(山城)의 13개 지역에 지교쇼(知行所)가 있는 자들에게 가을에 조선인이 래조할 때와 귀국할 때에도 인마를 내는 것을 다이칸이 고시할 것이니 지체함이 없도록 지교쇼에 미리 지시해 두도록 명령해야 할 것임	오메쓰케 요코다 비츄노카미가 건넨 문서
⑤	1719년 5월 17일	조선인이 와서 지나가는 큰 길에 보기 좋지 않은 곳, 집짓는 것을 내년엔 고치려고 생각하는 자는 올 해 조선인이 도착하기 전에 완성되도록 공사하라고 전에 지시했다. 공사를 생각하지 않았던 자는 조선인이 지나간다고 해서 일부러 고칠 필요는 없다. 처음에 고시했을 때 내년엔 공사를 할 자는 이번엔 하라고만 고시	로주 이노우에 가와치노카미도노(井上河内守展), 나카야마 기타마치부교 이즈모노카미(中山出雲守)

		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서 다시 고시함	가 건네서 바로 그날 마치부레로 고시
⑥	1719년 5월 27일	조선인이 등성할 때 지나가는 길을 지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넓이가 좁은 길 등이 있는 곳은 모노가시라(物頭), 아시가루(足輕) 등을 보내 지킬 것, 신분이 낮은 자들은 가치(徒士)에게 아시가루 약간을 붙여서 단속할 것, 물통은 열 맞춰 놓지 말고 경비초소 앞에 쌓아 둘 것, 미리 초롱을 내걸지 말 것, 구경하는 창에 발을 칠 것	로주 이노우에 가와치노카미도노가 건넨 문서
⑦	1719년 6월 1일	조선인이 지나가는 대로에 있는 집수리는 이전 마치부레의 내용대로 명심하고, 조선인이 지나가는 마을들은 골목에 기토(木戸)가 있는 곳은 조선인이 지나갈 때 기토를 설치하고 기토가 없는 마을들은 열키설기 만든 대나무 담에 기토를 붙여서 말을 탄 사람이 지나가도록 하고 조선인이 지나갈 때에는 사람들을 세워 둘 것, 조선인이 지나가는 길의 마을들은 특별히 길이 안좋은 곳만 길을 보수하게 하고 모든 청소는 도착 하루 전까지 끝낸다. 길 보수는 도착 하루 전에 끝내도록 하고 완성되면 그때부터 조선인이 지나가는 당일 까지 집수레가 이 길을 지나가지 않도록 한다. 체류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할 것	7월 18일 마치부레로 지시
⑧	1719년 6월 7일	올 가을 조선인이 왔을 때 로쿠고(六郷)에 1711년 때와 같이 배를 내게 한다. 인부는 책임자가 얘기해서 伊奈半左衛門 ⁴² 에게 전했다니 53명을 차출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부족한 75명은 후카가와(深川) 모토키바초(元木場町) 신보리초(新堀町) 등 1711년 신미통신 사행 때와 동일한 지역에 차출을 지시한다. 차출 시일은 고후나테(御船手)와 이시카와 하라베(石川源兵衛)에게 상의할 것	조선인 업무담당 마쓰다이로 쓰시마노카미(松平對馬守), 오메스케(大目付) 요코다 비추노카미, 오쿠보 시모쓰케노카미(大久保下野守) 세 사람에게 듣고 마치부레로 지시
⑨	1719년 6월 7일	일. 도로와 다리 보수는 근년 안에 꼭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곳 이번에 보수하고 그 정도는 아닌데 조선인이 와서 볼 것이라는 것만으로 보수하려고 했다면 하지 말 것. 일. 지나가는 길과 가옥은 특히 보기 좋지 않은 곳은 수리하게 하고 2, 3일 전에 끝내도록 할 것. 일. 청소는 하루 전에 하고 미리 할 필요는 없음. 일. 숙박하는 곳에서도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조선인 숙소는 예외로 할 것.	로주 이노우에 가와치 맥에서 셋슈(攝州) 효고(兵庫)의 접대역에서부터 시나가와 접대역에게 보낸 문서

		<p>일. 강과 벼랑, 다리 등에 등을 설치하는 것은 많이 줄 일 것.</p> <p>일. 집집마다 물통을 내놓을 필요 없음. 초소 또는 조선인 숙소 등에 대비용으로 조금 내놓을 것. 다만 숙소 안에서 조선인이 지나갈 때 물을 뿌릴 때 그 곳에 있는 물통을 이용하려면 집 안에 들여놓을 것.</p> <p>일. 모래를 쌓는 것은 삼사의 숙소 외에 일체 하지 말 것.</p> <p>일. 숙소에 아시가루 中間을 방비 등을 위해 차출하는 것과 청소를 위해 대용 인부를 모아두는 것은 업무에 충분할 정도를 고려해야한다. 그 외 검사를 위해 쓸데 없이 인원을 차출하지 않도록 할 것.</p>	
⑩	1719년 6월 7일 회람문서(廻狀)의 奧書	<p>셋수 효고에서 시나가와까지의 접대인에게 가와치카미도노게서 문서를 보낸다. (통신사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봉록이 적은 자(小身)의 지교쇼(知行所)에는 대관이 지시 하도록 명령했으니 잘 알아듣고 지시해야 한다. 이 회람문서를 빨리 돌리고 시모쓰케카미(下野守)게 되돌려줄 것.</p>	<p>발신: 마쓰다이라 쓰시마노카미, 요코다 비추노카미, 오쿠보 시모쓰케노카미</p> <p>수신: 접대 담당 다이칸(代官) 43명</p>
⑪	1719년 6월 7일	<p>가을 조선의 신사가 내조했을 때 국서와 답서 및 신사에게 敬禮(下座)하지 말 것</p>	<p>로주 이노우에 가와치노카미도노가 건넌 문서의 사본</p>
⑫	1719년 6월	<p>야마시로를 외 13개 구니에 지교쇼가 있는 분들이 이번 가을 조선인 내조와 귀국 때에도 인마를 내도록 다이칸이 지시할텐데 지체없이 차출하라고 고시하더라도 請負로 인마를 정하고 賃銀은 다카와리(高割)로 징수할 것이니 조만간 대관이 공시해야 할 것임</p>	<p>오메쓰케 요코다 비추노카미가 보냄</p>
⑬	1719년 6월	<p>시바모토(芝元) 오키도(大木戸)에서 교바시(京橋)까지 100인 조 2개조가 지키고, 교바시에서 나카바시(中橋) 廣小路에 선봉 1조가 지킬 것임</p>	<p>오메쓰케(御目付) 스즈키 이베(鈴木伊兵衛)⁴³⁾, 이노지로자에몽(稻生次郎左衛門)⁴⁴⁾</p>
⑭	1719년 7월 19일	<p>조선사행이 고산케(御三家)에 갈 때 이용하는 경로</p>	<p>오메쓰케 이노지로자에몽이 보여줌</p>
⑮	1719년 7월 19일	<p>마치부고는 한 사람은 조선사행이 도착하는 날 시바구치 근처까지 가서 시나가와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고한 후 앞서서 마을을 순찰하고 바로 혼간지로 가야 한다. 조선인이 혼간지에 도착한 후 등성하는데 별탈이 없다는 것을 로주에게 보고한다. 만약 퇴출한 후면 소바슈(側衆)에게 보고한다. 가와치 카미에게도 이야</p>	<p>로주 이노우에 가와치노카미도노가 오오카 에치젠카미(大岡越前守)에게 보낸 문서</p>

		기한다. 또한 쓰끼반(月番)은 남겨둔다. 모든 일은 1682년 때와 같이 하도록 명심한다. 또한 兩組 요리키(与力), 도신(同心)은 시나가와 다니야마(谷山)에서 혼간지까지의 길과 마을을 순찰하고 규율을 지키도록 지시한다. 요리키, 도신을 길에 배치할지 생각하여 어느 마을에 몇 명 정도씩을 들지 길을 둘러보도록 끈 지시해야한다	
⑯	1719년 8월 28일	조선인이 현상하는 매와 말이 2~3일 안에 도착할텐데 당일 시바(芝)에서 아사쿠사 혼간지까지 길에서 구경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므로 혼잡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그 때 수레를 끌고 지나가면 세워두고 작은 짐밭도 정리해서 둔다. 북이나 그 외 말을 놀라게 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 세워둔다. 물론 경비하는 자를 두어서 불조심을 하도록 신경을 쓰라고 지시해야 할 것이다	당일 바로 마치부레로 고시
⑰	1719년 9월 10일	조선인이 에도를 떠날 때까지 불조심에 주의하고 혹 시라도 불이 날 경우 그 마을에 책임을 물을 것임	로주 이노우에 가와치노카미도노가 오오카 에치젠카미에게 보낸 문서로, 마치부레로 고시
⑱	1719년 9월 12일	조선사행의 의례 때 1만석 이하, 다이후(大夫)들은 의관을 입고 칼을 차야할 것이니 그것을 각각에게 지시해야할 것임	오메쓰케슈 나카야마 이즈모노카미가 건넨 문서
⑲	1719년 9월 15일	조선인이 등성할 때 요리키(刀力)·도신(同心) 규정일. 아사쿠사 혼간지에서 常盤橋까지 거리 36町 정도일. 거의 1町마다 요리키 1명·도신 3명씩 함께 요리키 27명, 도신 100명	나카야마 이즈모노카미, 오오카에 치젠노카미가 앞서 올렸던 질의서로 로주 이노우에 가와치노카미도노가 附札로 보내심
⑳	1719년 9월 17일	조선사행이 귀국할 때까지 다니야마(谷山)에서 혼간지까지 가는 길과 근처를 돌아보고, 더욱이 아시가루들도 돌아보아서 안쪽까지 마을들의 불기가 있는 곳을 조사하고, 불기가 있는 것을 소홀히 다루는 자가 있으면 체포하도록 아베시키후(安部式部)와 야마가와 야스자에몽(山川安左衛門)에게 지시했으므로, 마치부교에게도 이노우에 가와치카미도노가 이야기해서 마을에 불기가 있는 곳을 소홀히 하는 자가 있으면 나누시가 조사하게 해야할 것임	9월 24일 마치부레로 고시
㉑	1719년 9월 24일	일. 조선사행이 27일에 도착하여 돌아갈 때까지 마을 안을 나누시와 쓰키코지(月行事)가 분담하여 빈틈없이	9월 24일 마치부레로 고시

		<p>밤낮으로 불조심에 주의하도록 지시해야한다. 2층에서 불이 나는 일은 반드시 없도록 해야 한다</p> <p>일. 조선인이 지나가는 길과 마을들의 다리가에 땀감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청소할 것</p> <p>일. 조선인이 지나갈 때 2층에서 구경할 경우 발을 치고 구경해도 상관없다는 것</p> <p>일. 조선인이 지나갈 때 손가락질이나 웃거나 하지 말 것</p>	
㉒	1719년 9월 26일	<p>일. 다음날 27일 조선인이 도착할 것이니 마을에서 집 주인은 물론 땅 임차인이나 가게 임차인까지 불조심을 해야 하고, 사행이 지나가는 앞길은 청소해야 한다. 물론 나누시, 쓰키교지는 가미시모(예복)를 입고 앞뒤의 기토 옆에서 싸움이나 말다툼, 소란이 없도록 지시해야할 것이다. 물론 불조심은 안쪽까지 고시하도록 지시해야할 것.</p> <p>일. 이용하는 길에 있는 하천의 배들은 보기 좋지 않은 배는 뒤쪽으로 빼도록 하고 만약 배로 구경을 할 때에는 가지런히 하여 구경할 것.</p> <p>일. 조선인과 매매하는 일은 상하를 막론하고 하지 말 것</p>	9월 26일 마치부레로 고시
㉓	1719년 9월 26일	조선인이 지나갈 때 구경하지 말 것. 더욱이 이층에서 구경한다면 앞서 고시했던 대로 병풍이나 발이라도 치고 구경하라고 신경 써서 고시해야 한다.	오보에(覺)
㉔	1719년 9월 26일	<p>일. 27일 조선인이 도착하므로 지나가는 길에 화재감시 초소가 있는데 취객은 (사행이) 지나갈 동안 조치해야할 것이다.</p> <p>일. 위와 같이 지나가는 길의 마을의 불 끄라고 표시한 작은 깃발 등은 지나갈 동안은 거둬들여 놓아야 할 것</p>	오보에(覺)
㉕	1719년 9월 26일	일. 조선인이 지나가는 길의 마을 등 가운데 문이 닫혀있는 곳은 문을 열고 구경해도 괜찮으면 문 안에서 병풍을 세우거나 막을 치고 구경해야할 것이다. 더욱이 아름다운 장식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를 마을들에 남김없이 고시해야 한다.	오보에(覺)/로주 시하이(支配)의 布衣 이상 역인
㉖	1719년 9월 29일	통신사행이 등성하여 의례를 행할 때 의관을 갖춰 입고 태도를 차는 포의신분의 관리들은 포의를 입고 5시에 등성하도록 고시해야 한다	
㉗	1719년 9월 30일	조선인의 의례가 끝나고 모레 2일에 모두 出仕해야한다. 의복은 성긴 견직물 고소데 아사조계를 입고 4시에 등성하도록 지시할 것	
㉘	1719년	이틀 후인 15일에 조선인이 에도를 떠날 때 마을에서	오보에(覺)/

	10월 13일	의 불조심은 이에모치뿐만 아니라 빌린 땅 빌린 점포 안까지 쓰키교지(月行事)가 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신경써서 지시해야한다. 덧붙여 싸움 말다툼 모든 시끄러운 일은 없도록 확실히 지시해야한다. 조금도 방심하지 않도록 할 것	10월 13일 마치부레로 지시
㉘	1719년 10월 15일	조선인이 체제하는 동안 마을에서 불조심을 하여 불이나지 않았는데, 바람이 많이 불 때 상매하는 자 등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번 조선인 체제동안처럼 지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방심하여 불이나서 크게 번졌을 때에는 불이 난 곳의 1초는 물론 바람 위 바람 옆의 마을들에도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명심하도록 마을에 고시해야할 것	10월 15일 마치부레로 지시

〈표 3〉의 ①은 1682년 임술통신사행이 에도를 방문했을 때 이용한 길과 마을의 규범, 당시 발행했던 마치부레 등을 조사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1711년 신묘통신사행 때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가 제기하여 시행되었던 통신사 접대의 간소화라는 외교의례 개혁안을 폐지하고 舊禮를 복구하려는 데서 1711년 이전 통신사행인 1682년 임술통신사행 때의 예가 필요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문서에 연월만 표기되어 있어서 정확히 이런 지시를 누가 마치부교에게 내렸는지 확인할 수 없다. 문서 끝에 밑줄 친 부분에 “본지에 정월이라고만 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나미마치부교가 문서 정리과정에서 선별한 문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②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마치부교쇼에서는 6월 22일에 (1) 에도에 들어와서 통신사행의 숙소인 히가시 혼간지까지 이용하는 길, (2) 에도성에 올라갈 때 이용하는 길, (3) 로주(老中)와 와카토시요리(若年耆)에게 갈 때

42) 伊奈忠達(1690-1756) 關東郡代

43) 鈴木直武

44) 稻生正武(1683-1747)

이용하는 길, (4) 쓰시마 도주의 저택(屋敷)에 갈 때 이용하는 길, (5) 마상재(馬上才) 공연 때 이용하는 길 순으로 통신사행이 에도를 방문했을 때 이용했던 길을 정리하여 오메쓰케 요코다 비츄노카미(横田備中守)와 나가야마 이즈모노카미(中山出雲守)에게 제출했다.

오메쓰케는 에도막부의 직제상 로주 아래에서 막부의 정무감독과 각 번에 법령 전달, 주요 육상도로인 고카이도(五街道)에 있는 驛의 마부와 말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⁴⁵⁾ 나가야마 이즈모노카미는 기타마치부교(北町奉行)로 미나미마치부교와 한 달씩 교대로 에도의 司法을 담당했다.⁴⁶⁾ 때문에 통신사행의 여정 제반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직책들에게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의 조선사행이 로주 및 와카토시요리를 방문했을 때 이용했던 경로를 보면 조선사행은 로주 구세야마토노카미도노⁴⁷⁾, 도다 야마시로카미도노⁴⁸⁾, 마쓰다이라 비고노카미(松平肥後守), 미즈노 이즈미노카미도노(水野和泉守展)⁴⁹⁾, 이노우에 가와치카미도노(井上河内守展)⁵⁰⁾와 와카토시요리 이시카와 오미카미도노(石川近江守展)⁵¹⁾, 오쿠보 사도노카미도노(大久保佐渡守展)⁵²⁾, 오쿠보 나가토카미도노(大久保長門守展)⁵³⁾ 8명의 저택

45) 川口謙二 外, 『江戸時代役職事典(東京美術選書)』, 東京美術, 1992; 『世界大百科事典』, 日立デジタル平凡社, 1998.

46) 당시 기타마치 부교는 나가야마 도키하루(中山時春)로 1719년부터 1723년까지 北町奉行로 근무했다.

47) 구세 시게유키(久世重之) 시모우사(下総)세키야도항(関宿藩) 번주, 1713년부터 1720년까지 로주역임.

48) 도다 다다자네(戸田忠真) 시모쓰케(下野) 우쓰노미야항(宇都宮藩) 번주, 1714년부터 1729년까지 로주역임.

49) 미즈노 다다유키(水野忠之) 미카와 오카자키항(三河岡崎藩) 번주, 1717년부터 1730년까지 로주역임.

50) 이노우에 마사미네(井上 正岑) 1705년부터 1722년까지 로주역임.

51) 이시카와 후사시게(石川 総茂) 1717년부터 1725년까지 와카토시요리 역임.

52) 오쿠보 쓰네히루(大久保常春) 1713년부터 1727년까지 와카토시요리 역임.

53) 오쿠보 노리히로(大久保 教寛) 1709년부터 1730년까지 와카토시요리 역임.

을 방문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로주와 와카토시요리로 근무했던 기간은 1705년부터 1730년에 걸쳐있다. 이것을 보면 지시대로 1682년 계해통신사행 때 사행이 이용했던 행로를 바탕으로 하여 1719년 기해사행이 방문할 로주와 와카토시요리의 저택으로 가는 행로를 정해서 제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1719년 기해통신사의 제술관으로 에도를 방문했던 신유한이 남긴 『해유록(海遊錄)』은 일본에서의 여정과 견문을 꼼꼼하게 기록한 사행록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해유록』에 기록엔 일본 문인들과의 교류한 경험담은 있지만 조선사행이 로주와 와카토시요리들의 저택을 방문했었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해유록(海遊錄)』에 10월 9일 기해사행이 쓰시마번주의 저택을 방문했으며, 그 위치가 사행이 머물렀던 히가시혼간지에서 약 5리쯤 떨어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⁵⁴⁾

조선사행의 로주·와카토시요리 저택 방문에 대해 민덕기는 1711년 조선사행의 경우를 예로 들어 조선사행이 류큐사행처럼 로주 등에 대한 문안방문은 없고, 오히려 쇼군의 종친인 고산케가 조선사절의 上官과 동격시 되어 연회 때 대작의례를 행했다고 했다.⁵⁵⁾ 그런데 <표 2>의 8번 문서를 보면 1748년 3월 조선사행이 에도에서 왕래하는 길이 정리되어 그 제목부분만 보면 다음과 같다.

시나가와(品川)에서 히가시혼간지까지 이용하는 길
 혼마루(本丸)에 등성하는 길, 그 곳에서 니시마루(西丸)에 등성하는 길
 니시마루에서 퇴출하는 길
 田安領馬場에서 曲馬가 있을 때 지나가는 길
 로주·와카토시요리들에게 상상관이 둘 때 이용하는 길

54) 신유한, 『海遊錄』 10월 9일. 쓰시마번주의 저택은 통신사행이 에도 도착 후 쇼군의 마상재 관람을 위한 예행연습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55) 민덕기(1999), 113쪽.

고산케에 상상관이 둘 때 이용하는 길
소쓰시마노카미 저택에 갈 때 이용하는 길

이 가운데 ‘로주·와카토시요리들에게 상상관(上上官)이 둘 때 이용하는 길’고산케에게 상상관이 둘 때 이용하는 길’을 보면 1748년에 에도를 방문한 조선사행의 경우 상상관, 즉 당상역관(堂上譯官)이 로주와 와카토시요리, 고산케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서내용을 보면 당시 상상관은 와카토시요리 호리 나오히사(堀 直旧), 니시마루 와카토시요리 아키토모 스케토모(秋元涼朝), 수석 로주 사카이 다다즈미(酒井 忠恭), 와카토시요리 미우라 요시사토(三浦義理), 로주 니시오 다다나오(西尾忠尚), 와카토리요리 이타쿠라 가쓰키요(板倉 勝清) 등을 비롯하여 모두 16명의 로주와 와카토리요리들을 방문했고, 미토, 오와리, 기이 고산케 모두 들면서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조선사행의 로주와 와카토시요리 및 고산케의 저택 방문은 1682년·1719년과, 1711년, 1748년 때가 모두 달랐을 수도 있다. 즉, 1682년과 1719년 사행때는 사행 중 일부가 로주·와카토시요리·고산케 저택을 방문했고, 1711년 사행때는 로주·와카토시요리의 저택 방문은 없었고 연회 때 고산케가 사행에 대해 대작의례만 수행했고, 1748년 사행 때는 상상관이 혼자 로주·와카토시요리·고산케 저택을 방문했던 것이 된다. 이후에 다른 사행 때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선인이 에도를 방문했을 때 이용한 길⁵⁶⁾ 가운데 숙소인 히가시 혼간지에서 에도성과 로주 와카토시요리들에게 갈 때에 간논라이신문(觀音

56) 박화진은 앞의 논문(2007)에서 1719년 기해통신사행이 에도에 입성하는 경로를 정리하고 그 근거로 『通航一覽』 68卷 「朝鮮國部四十四」(국서간행회, 1912, 348~349쪽)를 각주 15)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通航一覽』 68卷 「朝鮮國部四十四」에 있는 지명이 없기도 하고 없는 지명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通航一覽』 68卷 「朝鮮國部四十四」에 있는 기해통신사행의 경로는 d)와 동일하다.

雷神門)까지는 시나가와(品川)에서부터 에도로 들어와 숙소인 히가시 혼간지까지 이용했던 경로와 같다.

그리고 ⑭번의 7월 19일자 문서에 조선사행이 고산케(御三家)에 갈 때 이용할 경로를 오메쓰케 이노우 지로자에몽(稻生 次郎左兵衛)이 마치 부교에게 보여주었다고 되어 있다. 고산케는 각각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9남, 10남 11남 집안인 오와리 번, 미토 번, 기슈 번의 번주 가문을 말하는 데, 7월 19일자 문서의 경로를 보면 1719년 기해통신사행은 고산케 가운데 오와리와 기슈번주의 저택만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⁵⁷⁾ 이 때 조선사행이 이용했던 경로는 히가시 혼간지에서 도키와바시(常盤橋)까지는 로주 와카토시요리에게 갔던 경로, 에도성으로 갈 때 이용했던 경로, 마상재가 馬藝 때 이용했던 경로와 같다.

도키와바시는 에도성의 오테몬에서 아사쿠사로 가는 혼마치 도오리에 있었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에도가 재정비된 후에 니혼바시(日本橋)가 설치되어 에도의 교통이 남북을 축으로 하기 이전까지는 에도성과 도키와바시를 중심으로 한 동서 축에 의해 육로가 형성되었기⁵⁸⁾ 때문에 조선사행이 이용했던 경로에서 도키와바시는 주요 분기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5월 15일(③)에는 오메쓰케 요코다 비츄노카미, 기타마치부교 나카야마 이즈모노카미에게 조선사행의 접대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다이칸(代官)과 그를 도와 실무를 담당하는 데다이(手代)가 접대와 선물을 일체 받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⁵⁹⁾

이어서 5월 16일(④)에는 오메쓰케 요코다 비츄노카미가 야마시로(山城), 야마토(大和), 이즈미(和泉), 가와치(河内), 셋쓰(攝津), 오미(近江),

57) 『享保撰要類集』「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4, 7월 19일.

58) 『国史大辞典 10』, 吉川弘文館, 1989, 「常盤橋」.

59) 『享保撰要類集』「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4, 5월 15일.

단바(丹波), 하리마(播磨), 미카와(三河), 도토미(遠江), 스루가(駿河), 이즈(伊豆), 사가미(相模), 무사시(武藏) 지역에 지교소(知行所)가 있는 자들에게 인마를 내는 일에 대해 다이칸이 지시하면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교소에 미리 말해두어 차질이 없게 하도록 지시했다.⁶⁰⁾

5월 17일(⑤)에는 조선인이 지나가는 길의 수리와 관련하여 당시 로주였던 이노우에 가와치노카미도노(井上河內守展), 기타마치부교 나카야마 이즈모노카미가 지시를 내려 그날 바로 마치부레가 고시되었고,⁶¹⁾ 5월 27일(⑥)에는 조선인이 등성할 때 길 정비와 물통, 초롱, 창에 밭 치는 것과 관련하여 로주 이노우에의 지시가 있었다.⁶²⁾ 이어서 6월 1일(⑦)에는 조선인이 지나가는 대로에 있는 집수리, 기토(木戸)의 설치, 청소, 길 보수, 짐수레가 통행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마치부레로 고시했다.⁶³⁾

6월 7일(⑧)에는 조선인관련 업무담당자인 마쓰다이라 쓰시마노카미(松平對馬守), 요코다 비추노카미, 오쿠보 시모쓰케노카미(大久保下野守)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조선인이 왔을 때 배와 인부의 차출을 지시할 지역과 부족한 부분은 1711년 신미통신사행 때와 동일한 지역에 차출을 지시하고, 차출 시일은 고후나테(御船手) 이시카와 하라베(石川源兵衛)에게 상의하라는 내용의 마치부레를 고시했다.⁶⁴⁾

같은 날(⑨) 로주 이노우에 가와치는 셋슈(攝州) 효고(兵庫)에서부터 시나가와의 조선사행 접대 담당자에게 도로 및 가옥 수리, 청소, 초롱 준비, 물통배치, 인력배치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발행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선인의 방문을 계기로 특별히 도로보수를 할 필요는 없다거나 가로등 설치를 줄이고, 쓸데없이 인원을 많이 동원하지 말고, 귀인을 마중할 때

60)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4, 5월 16일.

61)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4, 5월 17일.

62)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4, 5월 27일.

63)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4, 6월 1일.

64)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4, 6월 7일.

대문 앞 양쪽에 쌓아올리는 모래인 盛沙는 통신사행의 최고위직인 三使의 숙소 이외에는 생략하라는 등이다. 이 문서는 오쿠보 시모쓰케노카미, 요코다 비츄노카미, 마쓰다이라 쓰시마노카미가 43명의 접대담당 다이칸에게 회람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시모쓰케카미(下野守)에게 되돌려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로주 이노우에 가와치노카미도노가 조선사행과 국서, 답서에 대해 敬禮, 즉 몸을 굽히고 머리를 바닥에 닿게 하여 조아리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⑪)⁶⁵⁾ 에도막부에서는 조선사행 접대에 있어서 금전적인 소비를 자제하고 조선인에 대한 의례적인 부분을 줄이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당시 계속되는 기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일본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교호개혁이 추진되고 있었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7월 19일(⑫)에는 로주 이노우에 가와치카미도노가 미나미마치부교 오오카 에치렌노카미에게 조선사행이 에도에 도착하는 날 해야 할 일에 대해 지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선사행이 에도를 방문했을 때 마차부교가 담당했던 업무는 첫째, 시바구치 근처까지 가서 조선사행이 시나가와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고하고, 둘째, 사행보다 앞서 가서 마을을 순찰한 후 바로 혼간지로 가고, 셋째, 조선인이 혼간지에 도착하면 등성하는데 별탈이 없다는 것을 로주에게 보고하는데, 만약 퇴출한 후면 소바슈(側衆)에게 보고하여 로주 가와치 카미에게도 말씀드리게 하고 쓰끼반(月番)은 남겨두고, 넷째, 두 무리의 요리키⁶⁶⁾, 도신에게 시나가와 다니야마(谷山)에서 혼간지까지의 길과 마을을 순찰하고 규율을 지키도록 지시하고, 여섯째, 요리키와 도신을 길에 배치할 것을 생각해서 어느 마을에 몇 명 정도씩을 둘지 길을 둘러보도록 지시하는 것⁶⁷⁾ 등이었던 것을 알

65) 『享保撰要類集』「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4, 6월 7일.

66) 마차부교를 보좌하여 에도의 행정·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했다. 南北 마차부교소에 각각 25명씩 배치되어 있었으며, 부하인 도신(同心)을 지휘·감독 관리하였다.

수 있다.

8월 28일(16)에는 통신사행에 앞서 2~3일 안으로 도착할 조선의 현상 매와 말을 구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과 길의 정비, 특히 말을 놀라게 할 것들에 주의하라는 명령에 따라 마치부레가 고시되었다. 9월 15일에는 이노우에 가와치노 카미도노의 附札(19)로 이전에 마치부교들이 로주에게 조선사행이 등성할 때 배치할 요리키와 도신의 인원수에 대해 올렸던 질의서가 전달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선사행 등성 때 사행의 숙소인 히가시 혼간지에서 常盤橋까지 거의 1町마다 요리키 1명, 도신 3명씩이 배치되어 총 27명의 요리키와 100명의 도신이 동원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⁶⁸⁾

한편, 8월부터 조선사행이 에도를 떠날 때까지 불조심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17 20 21 23 29) 단속 명령이 내려졌다. 9월 10일(17) 로주 이노우에 가와치카미가 미나미마치부교에게 보낸 문서에 조선인이 에도를 떠날 때까지 불조심에 주의하고 혹시라도 불이 날 경우 그 마을에 책임을 묻겠다고 해서 바로 마치부레로 고시되었다.⁶⁹⁾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마을에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은 10월 15일(29)에도 마치부레로 고시되었다.⁷⁰⁾

9월 17일에는(20) 보졸인 아시가루(足輕)에게 마을에서 불기가 있는 곳은 안쪽까지 살펴보게 했고, 방화, 도적, 도박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히쓰케도조쿠아라타메카타(火付盜賊改方)인 아베시키부와 야마가와 야스자에몽에게 불기를 소홀히 다루는 자는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나누시를 대상으로 불기를 소홀히 하는 자를 조사하라는 마치부레가 고시되었다.⁷¹⁾ 불조심과 관련해서는 이후 24일(21)에는 나누시와 쓰키교지(月

67)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4, 7월 19일.

68)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4, 8월 28일.

69)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4, 9월 10일.

70)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4, 10월 15일.

71)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4, 9월 17일.

行事)가 분담하여 빈틈없이 밤낮으로 불조심에 주의하라는 내용으로⁷²⁾ 26일(㉒)에는 마을에서 집주인은 물론 땅 임차인이나 가게 임차인까지도 불조심을 해야 한다는 마치부레가 고시되었다.⁷³⁾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719년에 일본에 파견되었던 기해사행은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에도에서 19일간 체류했다. 에도막부는 1월에 이미 조선사행이 에도체류기간 동안 이용할 길을 선례를 조사하여 정했다. 그리고 접대를 담당한 사람들에게는 문서를 발행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시키는 한편, 마치부레를 고시하여 도로보수, 청소, 불조심, 사행의 행렬을 구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 등 사행의 접대에 소홀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에도를 방문하는 조선사행을 맞기 위한 주택과 도로보수, 청소 등의 외관정비는 6월 초까지 문서가 발행되고 마치부레가 고시되었다. 특히 불조심과 관련해서는 8월 말부터 조선사행이 에도를 떠나는 10월 15일까지 여러 차례(㉑㉒㉓㉔㉕)에 걸쳐 단속 명령을 내렸다. 통신사 행렬을 구경하는 서민들에 대한 주의사항은 사행이 방문하기 3일 전인 9월 24일부터 고시되었다.(㉑㉒㉓㉔㉕)

1719년 조선에서 파견되었던 기해사행의 대우와 접대를 위해 에도막부의 지시로 발급되었거나 고시된 문서와 마치부레는 1718년 류큐사행 때와 비교해서 볼 때 그 수가 훨씬 많았고, 그 내용도 매우 상세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일한 외교국인 조선의 사행에 대한 당연한 대우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사행에 대한 에도막부에서의 접대양상만을 볼 때 1719년 사행에 대한 에도에서의 대우는 재정재건이 필요했던 막부의 상황이 반영되어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교호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간소화되어 실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72)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4, 9월 24일.

73)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4, 9월 26일.

3) 네덜란드인의 에도 參府

『교호센요루이슈』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에 네덜란드인과 관련된 문서와 마치부레는 <표 2>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에 해당된다. 우선 여섯 번째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f) 일. 네덜란드인은 매년 2월 에도에 도착(參着)하여 예를 올린 후에 마치부교쇼(役所)로 찾아뵈므로 진상품은 앞서 나가사키야 겐에몽(長崎屋源右衛門)이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린다.

일. 네덜란드인은 상관장, 야쿠닌(役人), 外科 이상 3명이 찾아뵈고 시라스(白洲) 뒤 明之間에 앉으면 담배를 내놓고 요닌(用人)이 나가서 말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음식을 준다.

하양(はあん) - 이리자케(煎り酒)에 설탕 넣은 것

된장국

술

안주 2가지 - 피라미구이(覆かはやき), 실로 자른 계란(玉子糸切)

과자 - 고마도란(胡麻胴亂)

우스차(薄茶)

위와 같이 내려주고 돌아간다.

일. 돌아간 후 사자를 보내 고소테(小袖) 두벌을 내려준다.

시라키(白木)쟁반에 얹어서, 목록을 붙이고, 고소테를 놓고, 하부타에(羽二重) 하나는 무지에 바둑판 문양, 하나는 작은 문양에 붉은 안감으로 그때그때 염색해서 차이가 있다.

네덜란드인이 에도에서 사용했던 숙소는 나가사키야 겐에몽의 가게였다. 나가사키야 겐에몽은 에도의 니혼마치 고쿠쵸 산쵸메(日本橋石町三

丁目)에서 약종상을 했던 상인이다. 에도 산뿌를 위해 에도를 방문한 네덜란드 상관장 일행에게 가게를 숙소로 이용하도록 제공했다.⁷⁴⁾

f)의 두 번째 항목을 보면 네덜란드인들은 마치부교쇼를 방문하여 접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라스는 마치부교쇼에서 법정이 설치된 장소로 그 뒤편 明之間에 네덜란드인이 앉으면 담배를 대접하고 요닌을 매개로 해서 의사소통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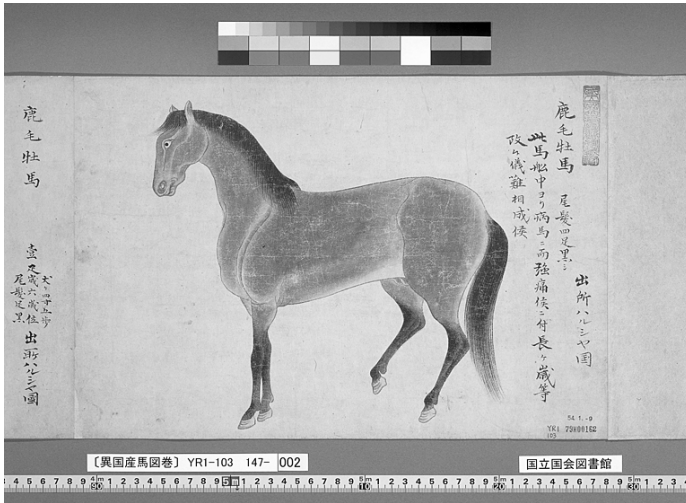
이때 네덜란드인에게 제공되었던 음식은 하양(はあん), 된장국, 술, 안주 2가지, 과자, 차 등으로 하양은 이리자케(煎り酒)에 설탕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을 해 놓고 있다. 이리자케는 일본 술에 우메보시(梅干し)를 넣어 졸인 건데, 여기에 설탕을 더 넣은 것이 하양이며, 고마도란은 과자의 일종으로 밀가루에 참깨를 섞어서 구워 안을 부풀린 것이고, 우스치는 조금 연한 말차 종류를 말한다.

네덜란드인이 부교쇼에서 숙소로 돌아가고 나면 이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통소매의 평상복인 고소테 두벌을 하얀색 나무쟁반인 시라키에 담아 목록을 써서 선물로 보냈는데, 두 벌의 고소테는 천과 문양이 다른 것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2>의 7번은 케이즈루라는 네덜란드인의 에도체류에 기간 동안의 법령·선례를 실은 것이다.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식산흥업, 국산화장려의 방침아래 말 개량을 위해 네덜란드인을 통해 서양 말을 수입하기도 했는데, 일곱 번째 문건은 일본에 서양의 말사육법과 치료법을 전수한 케이즈루(1697~1735: Keijser, Hans Jurgen)가 1735년 에도에 왔을 때 접대한 내용이다.

74) 上田 正昭, 『日本人名大辞典』, 講談社, 2001.

〈그림 1〉 『異國産馬図巻』



〈그림 1〉은 21마리의 외국산 말을 그린 『異國産馬図巻』의 일부로 페르시아와 자바 등의 말 원산지과 말의 연령, 색, 특징을 기록하고 있다. 에도시대 중국과 네덜란드 선박이 나가사키로 가져 온 동물은 우선 그림으로 그려 에도로 송부한 후 막부에서 필요로 하는 동물을 에도로 보냈다. 이 두루마리의 소장처인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작성한 해제를 보면 제작연대와 작자는 미상이며, 요시무네 때 수입된 말도 이와 같은 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⁷⁵⁾

케이즈루는 독일 함부르크 출신으로 말을 잘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1725년에 일본에 말 다섯 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듬해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에게 말을 헌상하고, 에도성에서 서양의 승마술을 보여주었다. 그 후 요시무네는 1729, 1730, 1735년에도 케이즈루를 에도로 불러 공연하게 하고 말 사육법과 치료법 등을 에도막부의 마부 등에게 전수하게 했다.⁷⁶⁾

75) 일본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http://dl.ndl.go.jp/info:ndljp/pid/3508071>

〈표 2〉의 일곱 번째 내용을 보면 1735년 케이즈루는 당분간 에도에 체류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4월 25일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최측근이었던 가노 히사미치(加納久通)는⁷⁷⁾ “케이즈루가 27일 아사쿠사로 원행을 할 계획이니 이전에 케이즈루가 아사쿠사에 갈 때 요리키와 도신을 차출했던 때도 있으니 그 때와 마찬가지로 해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해 나가사키부교 호소이이나바노카미(細井因幡守)에게 문의하라”고 마치부교에게 지시했다.

이 내용을 마치부교가 즉시 호소이이나바노카미에게 알리자 ① 케이즈루는 네덜란드인이 에도를 방문했을 때 숙소로 이용하던 약중 도매상 나가사키야젠에몽(長崎屋源右衛門)의 상점에서 묵을 것이라는 것, ② 27일 아침 5시 반에 숙소를 나서서 아사쿠사의 관음사에 가고 善龍院에서 휴식할 계획이라는 것, ③ 이전에는 아사쿠사에 갈 때 마치부교쪽에서 도신을 차출하고, 나가사키부교 미야케스오노카미(三宅周防守)와 호소이이나바노카미가 가신 1명씩, 아시가루(足輕) 2명씩을 차출했다는 것, ④ 이번에도 히젠노카미(肥前守)와 호소이이나바노카미가 각각 가신 1명과 아시가루 2명씩을 차출할 것이라는 내용을 써서 보내왔다. 그 내용 가운데 마치부교 쪽에서 경비를 차출하라는 것은 쓰여 있지 않아서 나가사키야젠에몽에게 문의한 후 미나미, 기타 부교소에서 각각 도신 세 사람씩을 차출하도록 결정하고 26일에 이 내용을 호소이이나바노카미에게 편지로 알렸다.⁷⁸⁾

76) 朝日新聞社, 『朝日日本歴史人物事典』, 1994. 일본 국립공문서관에는 케이즈루가 전수한 내용 및 요시무네의 질문에 대한 케이즈루의 답변 내용을 정리한 『阿蘭陀馬乗方聞書』가 소장되어 있다.(請求番号: 154-0418)

77) 기슈(紀州)출신으로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8대 쇼군으로 취임하면서 신설된 고요토리쓰기(御用取次)에 임용 되어 막부의 중신이 되었다. 요시무네의 최측근으로 교호개혁의 실질적 추진자였고, 로주를 제쳐두고 막정을 지휘하기도 했다.(国史大辞典編集委員会, 『国史大辞典』, 吉川弘文館, 1987)

78) 『享保撰要類集』「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7, 1735년 4월 26일자.

이에 대해 호소이 이나바노카미는 ① 케이즈루가 27일 5시 반에 출발할 예정이며, 이용할 길은 처음과는 달리 고쿠초(石町)에서 우에노의 구로몬(黑門)을 지나 중당 앞을 지나 구경하고, 보부자카(屏風坂)나 구루마자카(車坂)를 나와서 바로 아사쿠사의 관음사로 가고 우라몽(裏門) 밖의 켄류잉(善龍院)에서 점심을 먹고 휴식을 할 계획이라는 것, ② 원행에 이용할 말은 에도성에서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마부 사이토 산에몽(齊藤三右衛門)가 올 것이라고 도신들에게도 알려달라는 것, ③ 케이즈루가 나갈 때 고쿠초(石町)에서 이용할 길은 보기에 좋은 거리를 지나가도록 할 것 등을 부탁한다는 것, ④ 날씨가 흐리거나 이슬비가 내려도 케이즈루는 나갈 것이라는 것이며 이것이 가노 히사미치의 지시라는 내용으로 기타마치부교 이노 마사타케(稻生下野守)에게 답장을 보내왔다.⁷⁹⁾ 그리고 이 내용은 그날 도신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다.

케이즈루의 원행이 예정되었던 27일엔 비가 내려 결국 일정은 30일로 연기되었다. 이후 케이즈루는 5월 15일에 가메이도(亀井戸)등으로 원행을 갔고, 6월 11일에는 배를 타고 료고쿠바시(兩國橋)에서 스미다카와(隅田川) 邊까지 갔다. 7월 5일에는 배를 타고 쓰키치몬세키(築地門跡)에 갔다가, 거기에서 오카와(大川)까지 갔다. 케이즈루가 원행을 할 때 마다 도신(同心)이 나가서 호위했다.⁸⁰⁾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케이즈루는 4월부터 7월까지 적어도 3개월은 에도에서 체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조선·류큐사행의 에도체류기간 보다 훨씬 긴 기간이었다. 그리고 케이즈루의 접대와 관련한 지시는 주로 로주가 접대 지시를 내렸던 조선·류큐사행 때와 달리 쇼군의 최측근인 고요토리쓰끼로서 로주를 능가하는 권력을 휘둘렀던 가노 히사미치가 내렸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케이즈루는 에도 인근지역까지 원행

79)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7, 1735년 4월 26일자.

80)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7, 1735년.

을 하는 등 막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실용학문에 흥미를 가지고 기독교와 관계없는 서양서적의 수입제한을 완화하여 서양의 학술지식의 도입을 도모했던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정책과 서양의 승마술을 직접 배우기도 했던 쇼군 도쿠가와와 요시노부의 승마술에 대한 관심이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에도막부의 법령·先例集인 『교호센요루이슈(享保撰要類集)』의 「조센류큐아란타노부(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를 기본자료로 하여 도쿠가와 요시무네 집권시기 에도지역에서 조선·류큐사행과 네덜란드인을 각각 어떻게 대우하고 접대했는지 당시의 상황과 아울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조선의 통신사와 류큐 사행, 네덜란드인에 대한 에도에서의 접대는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시행했던 정책들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즉, 당시 일본의 경제 재건을 목표로 검소와 검약의 중시, 조세제도를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호개혁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1718년 류큐사행과 1719년 조선의 기해통신사에 대한 접대 및 의례 내용 역시 그 이전 사행에 비해 간소화되었다.

둘째, 1718년 류큐사행 때 당시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류큐를 ‘異國’이 아닌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는 ‘附庸國’으로 취급하여 사쓰마번주가 1718년 류큐사행을 에도까지 데려왔는데도 산킨코타이 행렬에 합류시켜 데려온 정도로 간주하여 관위를 올려주지 않았다.

셋째, 1719년 조선의 기해통신사행은 1711년 조선사행이 로주와 와카토시요리 저택을 방문하지 않고, 오히려 쇼군의 종친인 고산케가 조선

사절의 上官과 동격시 되어 연회 때 대작의례를 행했던 것과는 달리 모두 8명의 로주와 와카토시요리의 저택과 고산케의 저택을 방문했다. 1748년에 에도를 방문한 조선사행의 경우는 상상관, 즉 당상역관이 로주와 와카토시요리, 고산케를 방문했다.

넷째, 도쿠가와 요시무네에게 말을 헌상하고, 에도막부의 마부에게 말 사육법과 치료법 등을 전수한 케이즈루는 실용학문에 흥미를 가지고 기독교와 관계없는 서양서적의 수입제한을 완화하여 서양의 학술지식의 도입을 도모했던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정책과 서양의 승마술을 직접 배우기도 했던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승마술에 대한 관심 때문에 에도 근교까지 원행을 가는 등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이상과 같이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의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문서의 내용분석을 통해 도쿠가와 요시무네 집권시기 조선과 류큐 사행, 네덜란드인이 에도를 방문했을 때 이들에 대한 대우가 어땠는지 그 실상을 다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에도막부의 9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시게(德川家重)의 쇼군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1748년에 조선과 류큐에서 파견했던 사행의 접대와 관련하여 로주와 마치부교 사이에 왕래한 문서와 評定所의 上座 혹은 마치 부교가 稟議한 내용 등이 실려 있는 8번과 9번의 내용분석은 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선과 류큐사행이 이용했던 각각의 경로를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구명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의 논고에서 분석하여 에도를 방문한 조선·류큐사행과 네덜란드인에 대한 대우와 접대양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구명하도록 하겠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8년 11월 15일

논문 심사일 : 2018년 11월 29일

게재 확정일 : 2018년 12월 18일

참고문헌

〈사료〉

『享保撰要類集』 「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일본국립국회도서관 소장)
『通航一覽』

단행본

- 朝尾直弘, 『日本の歴史17－鎖國』, 小學館, 1975.
ロナルドトビ, 速水・永積・川勝 譯, 『近世日本の國家形成と外交』, 東京: 創文社, 1990.
高木昭作, 『近世日本の歴史』, 放送大學教育振興會, 2003.
イモンスクリーチ, 村山和裕 訳, 『阿蘭陀が通る』, 東京大学出版会, 2011.
池辺義象 編, 『日本法制史書目解題』上, 大鐙閣, 1918.
川口謙二 外, 『江戸時代役職事典(東京美術選書)』, 東京美術, 1992.
上田正昭, 『日本人名大辞典』, 講談社, 2001.
紙屋敦之, 『幕藩制國家の琉球支配』, 校倉書房, 1990.
紙屋敦之, 『東アジアのなかの琉球と薩摩藩(歴史科学叢書)』, 校倉書房, 2013.
喜舎場一隆, 『近世薩琉關係史の研究』, 國書刊行會, 1993.
三宅英利, 손승철 譯, 『近世日本の國家形成と外交』, 이론과실천, 1991.
荒野泰典, 『近世日本と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1998.
佐藤権司, 『朝鮮通信使・琉球使節の日光参り』, 隨想舎, 2007.
高木昭作, 『近世日本の歴史』, 放送大學教育振興會, 2003.
大石 學, 『江戸の外交戰略』, 角川學藝出版, 2009.

〈논문〉

- 민덕기, 「에도시대 琉球使節과 朝鮮使節」, 『朝鮮과 琉球』, 아르케, 1999.
박화진, 「朝鮮通信使의 에도(江戸) 入城 過程－제9차 통신사행(1719년)을 중심으로－」, 『조선통신사연구』 4, 2007.
마츠바라, 타카토시, 「근세 동아시아와 조선 통신사 「에도에 조선 통신사 퍼레이드가 왔다」」, 『지역사회』 71, 2014.
紙屋敦之, 「寛政八年琉球使節の江戸上りについて(特集 近世日本・琉球・中国の芸能交流)」, 『芸能史研究』 202, 2013.

- 久貝典子, 『琉球人来朝記』をよむー儀式の場での衣装という視点からー, 『阪
 券・寶玲文庫の世界(ハワイ大學所藏阪券・寶玲文庫デジタル化プロ
 ジェクト事業報告・研究報告會 發表文』, 2015.
- 山本有美, 「安政五年阿蘭陀領事官江戸参府の歴史的 위치について」, 『昭和女子
 大学文化史研究』 7, 2003.
- 片桐一男, 「史料 『参府之阿蘭陀人逗留中出役致候節書留』について」, 『日蘭学
 会誌』 25, 2000.
- 玉井建也, 「朝鮮通信使・琉球使節通航と情報・接待・応対ー伊予国津和地島を
 事例としてー」, 『早稲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 第4分冊, 日本史
 東洋史西洋史考古学』 51, 2006.
- 飯沼雅行, 「朝鮮通信使・琉球使節通航時の綱引助郷ー摂河兩國を中心にー」,
 『歴代宝案研究』 9, 1998.
- 구지현, 「通信使와의 비교를 통해 본 琉球使節: 荻生徂徠의 〈琉球聘使記〉를
 자료로 하여」, 『열상고전연구』 41, 2014.
- 조영심, 「1710년대 조선통신사와 류큐사절단의 국서 사건」, 『조선통신사연
 구』 24, 2017.
- 柏山泰訓, 「무로쓰(室津)에 온 조선통신사와 류큐 사절」, 『조선통신사연구』
 21, 2016.
- 木土博成, 「심포지움ー訳官使・通信使とその周辺ー토론문(나고야대), 2018.
- 木土博成, 「琉球使節の成立」, 『史林』 99권 4호, 2016.
- 寺島実郎, 「本質を見抜く眼識で新たな時代を切拓く 脳力のレッスン(158)蘭学
 の発展とシーボルト事件の背景: 17世紀オランダからの視界」, 『世界』
 870, 岩波書店, 2015.
- 허지은, 「오후레가키(御觸書)를 통해 본 일본의 通信使 접대」, 『서강인문논
 충』 44, 2017.
- 眞栄平房昭, 「琉球使節の'江戸立」(上) ([http://www7b.biglobe.ne.jp/~whoyou/
 history01.html#9](http://www7b.biglobe.ne.jp/~whoyou/history01.html#9))

Abstract

The Visits of Chosen and Ryukyu Delegations
and a Dutchman to Edo, and the Ordinances
and Precedents of Bakuhu(幕府)
- Focused on Chosen Ryuku
Arantazinnobu(「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of
Kyohosenyoruisyu(『享保撰要類集』) -

Jl-Eun Her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Edo government(江戸幕府) received and treated the delegations of Chosen and Ryukyu(琉球) in comparison with the Dutchman through the analysis on Kyohosenyoruisyu a compilation of precedents and ordinances in relation to the visits of Chosen and Ryukyu delegations and a Dutchman to Edo during the time of Shogun Tokugawa Yoshimune(徳川吉宗) who was the eighth shogun of Edo Shogunate; this kind of studies have rarely been carried out in the research of delegations to date. The findings verified through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Edo receptions of the Chosen delegation in 1719 and the Ryukyu delegation in 1718 were simplified compared to previous delegations in receptions and ceremonial matters as they were treated on the same line of the policies executed by Tokugawa Yoshimune such as in Kyoho reforms.

Second, at the time of the Edo visit of Ryukyu delegation in 1718, Tokugawa Yoshimune treated Ryukyu as a 'subject state' which was under the influence of Japan, not as a 'foreign country', and even if a lord of Satsuma-

accompanied(薩摩藩主) Ryukyu delegation to Edo, they were just regarded as a joining team to Sankinkotai and his official rank was not promoted to the delegation level.

Third, whereas, in 1711, no visit was made to the residences of Rouju(老中) and Wakatoshiyori(若年寄), or in 1748, the Official Interpreter visited the residence of Gosanke as well as the residences of Rouju and Wakatoshiyori, in case of the Chosen delegation in 1719, all of the eight delegates went to visit the residences of Rouju, Wakatoshiyori and Gosanke(御三家).

Lastly, on the other hand, Keijser, who offered horses as present to Tokugawa Yoshimune and taught the horsemen of Edo Shogunate breeding methods and therapeutics, received special treatment including accompanying Tokugawa Yoshinobu to the suburbs of Edo because of the Shogun's interest in horse riding. Tokugawa Yoshinobu learned first-hand Western horse riding and carried out policies such as introducing Western academics into the nation.

Key words

Tokugawa yoshimune(徳川吉宗), Kyohosenyoruisyu(享保撰要類集), Chosen Ryukyu Arantazinnobu(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 Keijser, Sankinkotai(參勤交代)